

지난 2월 14일, 천문학회 주관 원상직에서 정년퇴임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최진동 이사를 만났다. 오랜 교직과 공직 생활을 마치고 나서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했다.

“여전히 바쁩니다. 퇴임 전부터 준비했던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과 관련된 일인데요, 교육의 본질로 접근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갖고 ‘미래교육 시민포럼’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아 나가는 일을 하려고 해요. 지금은 제가 있는 내건에서 시작했고, 전국 단위 활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중·고 교육문제부터 대학입시까지, 교육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포럼의 주 최는 교육 전문가, 교육 관련 대학 교수, 정년을 마친 교사들이라고 한다.

“저는 아이들이 셋인데 과외를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도의 교육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도가 지나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생각에 동의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끈을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직에서 떠나고 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학원 가면 좋지?’ 라고 물었봤다. 그러나 대답은 대부분 ‘아니요’였다.

“그런데 왜 그러고 물어보면,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아이들이 너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방대한 문제이다 보니 그 해결책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점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

“대학 입시에 맞춰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돼 가고 있습니다. 이걸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학교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만들었고, 초등학교는 중학교 가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개인의 자아를 발전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이런 얘길 합니다. 초·중교에서는 머리를 많이 비워두라고요, 컴퓨터도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은 걸 넣어 놓으면 나중에 정작 필요한 것을 넣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교육 얘기를 하자니 그 끝이 없어 보인다. 최진동 이사는 퇴임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최진동 이사



후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학교에 있을 때도 과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과학연구원에 와서 과학교육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일을 했죠. 가시적으로 발명품경진대회나 각종 경시대회에서 성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랜드 등 다섯 기관이 합심해 ‘꿈돌이 사이언스 존 발전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과학행사를 이들 기관이 모여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단위 기관에서 하던 것보다 그 효과가 배로 나타나더군요. 각 기관의 기관장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인의 관심이 천문 쪽에 많다보니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발전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이런 행사를 공동으로 하면서 천문연구원이나 아마추어천문학회 분들과 좋은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퇴임을 하면서 박석재 원장님하고 아마추어천문학회 장세일 회장님이 저를 이사로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이고, 대전 지역 학생들의 과학적인 꿈을 키우는 데 천문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흔쾌히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진동 이사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뒷동산에 올라서면 까만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은하수가 펼쳐진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잖아요. ‘아, 어렸을 때 꿈은 별에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요즘 아이들은 도시에서 별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 꿈이 없어요. 물론, ‘별’은 봅니다. 하늘의 별이 아닌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보면서 꿈을 키우죠. 이런 게 잘못 된 것만은 아니지만, 별을 보며 느끼는, 그런 가슴 뛰는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별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는 훌륭한 주제이고, 그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동 이사의 호는 ‘고성(孤星)’이다. ‘외로운 별’이라는 뜻이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어렸을 적 제가 자란 환경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늘 부족한 환경이었죠. 복두칠성 중에 가운데, 네 번째 별은 다른 별보다 어둡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모습과 비슷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 별을 고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제 호도 고성이 되었습니다.”

최진동 이사는 퇴임을 하면서 ‘고성(孤星)의 술 이야기’라는 자전 수필을 내놓았다. 이 책은 어렸을 적 어려웠던 환경에서 힘들게 공부 했던 이야기부터 40여 년 교직에 몸담으면서 가졌던 많은 인연들을 그가 좋아하는 술과 엮어 풀어간 수필이다.

“교직생활을 마치면서 대개 회고록이나 논문집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받은 사람은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색다르게 뭔가를 써보고 싶었어요. 제 가까운 사람이라면 제가 술을 좋아

한다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술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제 삶을 거기에 담고자 했어요.”

특별히 준비는 하지 않았단다. 정년을 앞두고 나는 인터뷰에서 농담처럼 한 이야기가 그 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우연히 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40년 술을 먹어왔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술 속에 있다. 그걸 엮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지나가듯 했는데, 그게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보도가 되고 나니 안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간간이 적어두었던 메모와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하나둘 꺼내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출판기념식 때 박석재 원장님이 축사를 해주셨는데, ‘천문연구원 원장인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고성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그런데 나중에 심사를 해보니 고성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고성이라는 호를 사용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는 축사를 해줬습니다.”

술은 청탁불구(淸濁不拘, 술을 마시는 데 있어 청주와 탁주를 가리지 아니한다)라고 한다. 그런데 예전에 마시던 막걸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난단다.

“술이 시대적으로 변해왔잖아요. 처음에는 막걸리였죠. 막걸리를 마시던 시절의 정취가 좋습니다. 막걸리는 술 자체도 순수하고, 그걸 마시는 사람도 순수해요. 논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농민들이 시원하게 목을 축이던 술이거든요. 특별히 좋아하는 술은 없습니다. 그저 마시는 분위기 자체가 즐겁고 좋은 것이죠.”

수필의 맨 마지막 이야기의 제목은 ‘나는 행복합니다.’이다. 최진동 이사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40여 년간 건강하게 일하고 정년퇴임을 할 수 있었다는 게 큰 행복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분들이 있어서 또한 행복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가 있어서 행복하고, 술을 좋아하는 제게 건강한 몸을 주신 부모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이들도 모두 잘 키워서 행복하고... 행복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집필 활동도 계속 해보고 싶다는 최진동 이사. 아마추어천문학회 이사로서 활동함에 있어서도 행복한 순간이 계속 되길 바라본다.

